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교수 임정빈
영동전문대 여성교양과
전임강사 조미환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이영호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

Prof. : Jeong-Bin, Im

Dept. of Women Culture Yongdong College

Full-time Lecturer : Mee-Whan, Cho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

Lecturer : Young-Ho, L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path model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 among socioeconomic variables,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For this purpose,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system theor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was suggested.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with 254 financial managers who were residents of Seou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variables that

* 본 논문은 1997년도 한양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ffected financial satisfaction directly were financial knowledge, monthly saving amounts, the gap between the level and standard of living, and financial implementing. The financial planning effected indirectly on financial satisfaction through financial implementing.

(2)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d support for a systems approach to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ese result indicated that it is the combined effect of inputs and throughputs that effects the output of financial satisfaction.

I. 문제의 제기

가계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가계는 1960년대초부터 전개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가계의 소비수준 및 경제적 복지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국제수지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정부의 경제정책 및 최근에 갑자기 불어닥친 조기퇴직 등 거시환경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계가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가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가계의 안정과 성장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증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계의 복지는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복지수준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관리과정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자원,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가계의 재무문제를 하나의 체계적 흐름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각 가계에게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어 이 분야의 연구와 실제 생활의 적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가계의 재무상태 및 재정만족도에 대한 단순한 이론검정이나 영향요인의 평가,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재무관리간의 관계 등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김순미, 1993). 특히 재무관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각 영역의 특정부분을 기술적으로 다루었거나 또는 재무관리의 결정유형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Titus, Fanslow, & Hira, 1989).

나아가 가족자원과 요구로 구성되는 투입, 미래지향적인 인지과정인 재무계획과 실제 행동인 실행으로 나타나는 통과과정 및 이러한 재무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정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특히, 계획과 수행으로 구성되는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각 가계가 느끼는 재정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가계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고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재무관리행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

운 모색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과 요구,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간의 관계를 체계론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재무관리행동의 개선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개념틀 및 선행연구 고찰

1. 체계적 접근에 의한 재무관리체계

가족은 투입, 과정, 산출로 구성된 관리적 체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체계론에 의하면 가계의 복지향상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증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Deacon & Firebaugh, 1983). 즉 일정한 자원과 요구를 가진 가계가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가계의 복지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개별 가계가 자기 처한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자원관리행동을 분석하게 해주기 때문에 개별가계의 관리행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러 학자의 견해 중에서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은 기술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관리활동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Heck & Doughitt, 1982; Heck, 198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을 적용하여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이러한 요인과 가계의 재정만족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재무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고찰

1) 투입요소

투입은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자원의 이용에 동기를 제공하는 요구로 구성된다. 요구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동기부여요소로서(Titus, Fanslow, & Hira, 1989) 가계의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관리에 관한 심리적 성향등이 포함되며, 자원은 요구의 만족수단이다.

가계소득은 가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족자원으로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가계소득은 재정만족도 혹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정적인 영향(Davis & Helmick, 1981; Rowland 등, 1985; Danes & Morris, 1989; Mugenda 등 1990; Danes, 1991; Sumarwan & Hira, 1992; Danes & Rettig, 1993; 김순미, 1993; 고보선, 이영호, 1996)을 미칠 뿐 아니라 재무관리행동에 직접,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가계는 일정한 소득을 생활비, 부채상환, 저축 등의 여러 형태로 배분을 하여 가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 대신 실제 가계를 운영할 때 배분하는 몇 개의 하위개념을 적용하여 각각이 재무관리행동 및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원수도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원수는 재정만족도와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anes & Morris, 1989; Titus 등, 1989; Mugenda 등, 1990; Danes & Rettig, 1993, 고보선, 이영호, 1996). 이는 가계의 재정상태는 한정된 반면 가족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각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요구가 커지게 되므로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Danes & Morris(1989)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itus 등(1989)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Heck(1983), Hira(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수준과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유의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식은 재정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Titus 등(1989)의 연구에 의하면 금전관리자의 재무지식은 계획과 수행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재정만족도

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ugenda, Hira 그리고 Fanslow(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재무관리지식은 금전관리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생활격차감은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Danes & Morris, 1989) 가계의 재무관리를 요구하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 Danes와 Morris(1989), 고보선·이영호(1995)의 연구결과 소비수준과 소비표준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는 생활격차감이 적다고 인지할수록 재무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5년후의 가계의 재정적 상황을 자신의 표준에 근거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재정적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고보선, 이영호, 임정빈, 1997). 미래의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Davis와 Helmick(1985)의 연구결과 미래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재정적인 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숙(1996)의 연구결과도 이와 일치하고 있다.

2) 변환과정 : 재무관리

변환과정은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는 실제 관리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계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가계는 계획과 수행의 재무관리행동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는 산출요소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은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인지과정으로 일련의 행동에 대한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화로 구성된다. Titus 등(1989)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계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보선 등(1997)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가계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 계획은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Heck, 1983; Titus 등 1989; 고보선 등, 1997).

수행은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계획과 실제 수행간에 차이가 생기면 이를 조정하거나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과정을 말한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Titus 등, 1989; Sumarwan, Hira, 1992;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5; 고보선 등, 1997)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계관리지식, 경제적기대감 등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3) 산출 : 재정만족도

요구와 자원을 투입하여 구체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한 결과 요구의 충족과 자원의 사용이라는 일련의 산출을 얻게 되고 그 성취정도는 만족감으로 나타난다. 즉, 재정만족도는 재무관리의 결과로 성취되는 산출요소로서 가계관리자가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향숙, 1997).

여러 선행연구(Titus 등, 1989; Mugenda, Hira & Fanslow, 1990; Sumarwan, Hira, 1993; 김순미, 1993; 고보선, 이영호, 1995)에 의하면 재정만족도는 소득, 연령, 재무관리지식 등과 같은 투입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itus 등(1989), Sumarwan과 Hira(1992), 김순미(1993), 홍향숙(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검증되었다. 나아가 투입변수는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수인 재무관리행동을 통해서 재정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입, 과정, 산출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체계론적 개념들을 지지하고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투입변수인 자원과 요구변수는 도시가계의 재무관리계획과 수행행동 및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과정변수인 재무관리계획과 수행행동은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와 관련 제변수들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투입변수

자원변수 중 재무관리지식 척도는 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묻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는 각각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의 분포는 최저 0점부터 최고 9점까지의 범위를 지니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투입변수 중 요구변수에 포함된 생활격차감척도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묻는 척도로서 5점 리커트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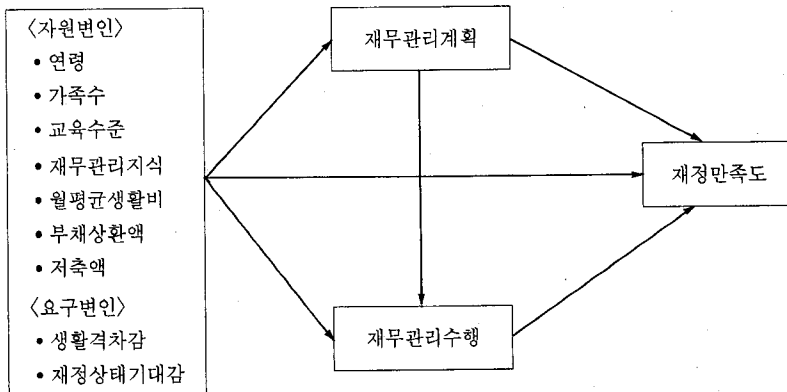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격차를 높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재정상태는 좋아질 것이다”의 5점 리커트형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변환과정변수

변환과정 척도는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과 수행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Godwin과 Carroll(1986), Fitzsimmons 등(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계획에 관한 5문항, 수행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리커트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는 각각 .88과 .86이다.

3) 산출변수

산출변수는 현재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묻는 것으로 4점 리커트형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각 가계에서 가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등에 따라 유의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로 한정시켰으며, 조사는 1995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자료는 239부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표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4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1. 가계의 재무계획에 대한 제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가계의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재무관리계획에는 재무관리지식만이 유의미한 영향($\beta=.13$)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7%였다.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재무관리계획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계획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Titus 등(1989), 고보선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계획은 가계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

변수	집단	빈도(%)	변수	집단	빈도(%)
연령	20대	30(12.6)	월평균 부채 상환액	없음	62(25.9)
	30대	79(33.1)		20만원이하	48(20.1)
	40대	90(37.7)		21-50만원	74(31.0)
	50대이상	40(16.7)		50만원이상	55(23.0)
월평균 생활비	50만원이하	37(15.5)	월평균 저축액	없음	12(5.0)
	51-100만원	87(36.4)		1-20만원	39(16.3)
	101-150만원	54(22.6)		21-50만원	107(44.8)
	151-200만원	33(13.8)		51-100만원	58(24.3)
	200만원이상	28(11.7)		100만원이상	23(9.6)
교육수준	고졸이하	126(52.7)			
	대졸이상	113(47.3)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생활격차감	3.38	0.98	계획	13.23(2.65)*	2.80
미래기대감	3.75	0.97	수행	19.90(2.84)*	3.52
재무관리지식	4.11	1.89	재정만족	2.38	0.77

*는 5점척도로 환산한 점수임.

IV. 연구결과 및 해석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관련변수들간의 다중공선

리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행동전의 인지적인 활동이다. 이때 재무관리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표 2〉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령	1.00											
2. 가족수	.30**	1.00										
3. 교육수준	-.19*	-.19*	1.00									
4. 월평균생활비	.38**	.22**	.18*	1.00								
5. 월평균부채상환액	.05	.05	-.01	-.05	1.00							
6. 월평균저축액	.10	-.03	.10	.32**	.09	1.00						
7. 재무지식	-.07	.09	.13	.03	.14	.04	1.00					
8. 재무상태기대감	-.27**	.08	-.07	-.05	.15	.05	.09	1.00				
9. 생활격차감	-.07	.01	-.07	-.25	-.00	-.25**	-.07	-.04	1.00			
10. 재무관리계획	-.09	-.01	-.11	-.14	.10	-.07	.11	.09	.10	1.00		
11. 재무관리수행	.11	.02	-.06	.13	.08	.16*	-.01	.10	.02	.45**	1.00	
12. 재정만족도	-.01	-.01	.07	.30**	-.06	.29**	-.03	.12	-.33**	.03	.23**	1.00

* P<.01 ** P<.00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재무관리지식이 재무관리 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월평균생활비와 월평균 저축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매월 갚아야 할 부채상환액이 많을수록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재무관리자들이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합리적인 재무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 3〉 재무관리계획과 수행에 대한 제변수의 영향력

독립변수	계 획		수 행	
	b	β	b	β
연령	-.01	-.03	.05	.12
가족수	-.06	-.02	-.13	-.04
교육수준	-.11	-.11	-.01	-.01
재무관리지식	.20	.13*	-.12	-.06
월평균생활비	-.00	-.09	.01	.13
월평균부채상환액	-.00	.07	8.71E-04	.01
월평균저축액	-.00	-.03	.01	.15*
생활격차감	.25	.08	.17	.05
재정상태기대감	.14	.05	.37	.10
계획			.61	.48***
상수	13.45		7.88	
N=239	R ² = .07	F= 1.65	R ² = .28	F= 7.81***

* P<.05 *** P<.001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가계의 재무관리수행에 대한 제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재무관리수행에는 계획($\beta = .48$)과 월평균저축액($\beta = .15$)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8%였다(표 3)). 즉 재무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수록, 월평균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가계관리자가 소득을 포함한 주어진 일정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원의 배분과 사용을 심사숙고하여 계획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가계가 원하는 경제적 복지를 달성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할수록 재무관리행동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뿐 아니라 나아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며, 이러한 결과는 고보선 등(1997), 홍향숙(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월평균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은 액수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므로 이들 요인은 재무관리행동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저축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득을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저축액이 많으면 가계관리자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지니고 가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행동을 더욱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축은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는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재무관리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월평균소득 대신 이를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부채상환액, 월평균 저축액의 세 가

지 변수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은 재무관리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월평균저축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가계의 객관적 재정상태가 재무관리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라는 단일변수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보다 세밀하게 몇 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가계의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가계의 재정만족에는 생활격차감($\beta = -.25$), 월평균생활비($\beta = .22$), 재무관리수행($\beta = .19$), 월평균저축액($\beta = .15$)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네 변수는 재정만족도를 25% 설명하고 있다. 즉, 생활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할수록 재정상태에 대

<표 4>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변수의 영향력

독립변수	b	β
연령	-.01	-.11
가족수	-.01	-.02
교육수준	-5.89-E	-.00
재무관리지식	-.02	-.06
월평균생활비	.00	.22**
월평균부채상환액	-.00	-.08
월평균저축액	.00	.15*
생활격차감	-.20	-.25***
재정상태대감	.06	.08
계획	.00	.01
수행	.04	.19*
상수	2.19	
N=239 R ² = .25 F= 5.93***		

* P<.05 ** P<.01 *** P<.001

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격차감은 가계관리자가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생활수준과 현재의 생활상태의 차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생활수준이 같아도 생활표준이 서로 다를 경우 이들간의 격차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만족도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유추는 경험적 연구에서 검증되어 Danes & Morris(1989), 고보선, 이영호(1995)의 연구는 생활격차감이 재정상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들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생활격차감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인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자원요소인 월평균생활비와 월평균저축액은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계소득 중에서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충분할수록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므로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도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의 소득에서 저축하는 부분이 많을 경우 이는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관리수행행동이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Titus 등, 1989; Sumarwan, Hira, 1992; 김순미, 1993; 홍향숙, 1997)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재정만족도에는 월평균생활비, 저축액 등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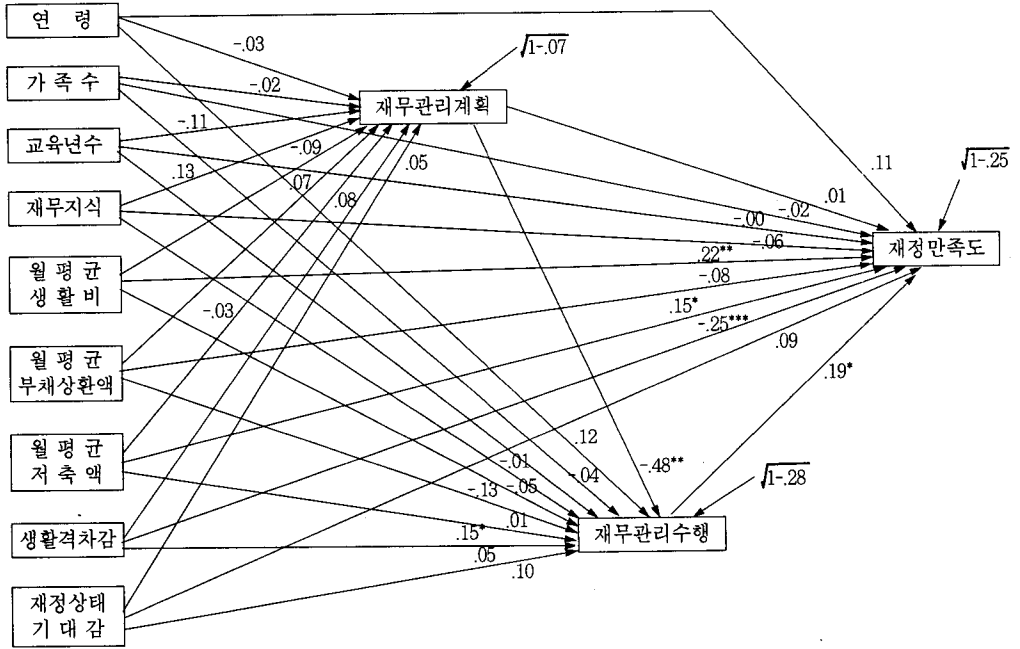
4.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변수간의 인과적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림 2>와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¹⁾ 또한 각 독립변수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5>).

<그림 2>의 경로모형과 <표 5>의 경로효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관리지식은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재무계획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계획과 수행을 매개하여 재정만족도에 미약하나마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관리지식이 많다고 해서 재정만족도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관리지식이 많으면 보다 실행가능한 체계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수행할 경우 재무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재정만족도정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월평균저축액은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행을 경유한 간접효과도 보이고 있다.

한편, 변환변수인 재무계획은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재무관리수행을 경유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관리수행은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계획은 행동이전의 인지적 활동이므로 계획 그 자체는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재무관리행동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수행행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정만족도정도도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 본 연구는 경로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1차 회귀분석결과 유의하게 나온 변수만을 다시 2차회귀분석하여 경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본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를 모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설정한 변수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이를 경로에서 제외시킬 경우 매개변수를 경유한 간접효과마저 무시되기 때문이다(김두섭, 1993).



〈그림 2〉 재정만족도의 경로모형

〈표 5〉 재정만족도에 대한 총 경로효과

독립변수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연령	-0.11	.02	-0.09	.08	-0.01
가족수	-0.02	-0.01	-0.03	.02	-0.01
교육수준	-0.00	-0.01	-0.01	.08	.07
재무관리지식	-0.06	.01	-0.05	.02	-0.03
월평균생활비	.22**	.01	.23	.07	.30
월평균부채상환액	-0.08	.01	-0.07	.01	-0.06
월평균저축액	.15*	.03	.18	.11	.29
생활격차감	-.25***	.02	-.23	-.10	-.33
재정상태기대감	.08	.02	.10	.02	.12
계획	.01	.09	.10	-.07	.03
수행	.19*		.19	.04	.23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체계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연구가 설정한 자원과 요구의 투입, 재무계획과 수행으로 구성된 변환과정, 재정만족도정도를 나타내는 산출은 일련의 인과관계를 보임으로써 체계적 접근법에 의해 제시된 개념적 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계획에는 재무관리지식만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재무계획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관리수행에는 계획과 월평균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재무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수록, 월평균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의 재정만족도에는 생활격차감, 월평균 생활비, 재무관리수행, 월평균저축액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생활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할수록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투입요소 중 자원에서는 월평균생활비와 월평균저축액이, 요구 중에서는 생활격차감이 산출요소인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월평균저축액은 수행을 경유한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재무관리지식은 계획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임으로써 계획과 수행을 경유한 미미한 간접효과만을 나타냈다.

다섯째, 변환변수인 재무계획은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재무관리수행을 경유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수행은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무관리지식은 재무계획에 중요한 영향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재무관리지식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지니게 되므로 계획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가계의 재무관리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용사용법, 재테크방법 등 다양한 재무관리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재무관리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월평균소득 대신 이를 월평균 생활비, 부채상환액, 저축의 세 가지 변수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재무관리수행에는 월평균저축액이, 재정만족도에는 월평균생활비와 월평균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가계의 객관적 재정상태가 재무관리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라는 단일변수 대신 이를 몇 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저축이 재무관리수행과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축은 가계 관리자가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강화요인으로도 작용할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재정만족도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가계관리자에게 저축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득을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인 동시에 재무관리행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동기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생활격차감은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격차감이 재정상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이 변수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인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생활격차감이란 가계관리자가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생활수준과 현재의 생활상태의 차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생활수준이 같아도 생활표준이 서로 다를 경우 이들간의 격차를 다르게 인지하게 되고 이는 만족정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가계관리자가 자신의 생활표준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 재정만족도에 대하여 재무관리 지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저축액, 생활격차감은 직접 및 간접효과를, 재무계획은 재무관리수행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재무관리수행은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임으로써 이들간에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 접근법에 의해 제시된 개념적 틀을 뒷받침할뿐 아니라 재정만족도에는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계관리자가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 이미 외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재정만족도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수행행동을 통해서만 만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인 재무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가계관리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지식척도에 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는데, 이 두 항목이 재무관리지식을 망라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여 조사한다면 재무관리지식이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재무관리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월평균소득 대신 이를 월평균 생활비, 부채상환액, 저축의 세 가지 변수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계소득 대신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몇 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파악한다면 이들의 영향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연구는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농촌가계와의 비교연구가 행해진다면 도농간의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보선·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고보선·이영호·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정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 김두섭(1993).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법문사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2.
-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0(3), 205-215.
-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 2ed.. Allyn & Bacon. Inc.

- Fitzsimmons, V.S., Hira, T.K., Bauer, J.W. &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4.
- Godwin, D.,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Heck, R.Z.(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Mugenda, O.M., Hira, T.K., & Fanslow, A.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 343-360.
- Sumarwan, U. & Hira, T.K.(1992). Credit, saving, and insurance practice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preparation for financial emergencies among rural househol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1(2).
-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